

# 외인 선물 대규모 순매수 이후



[ Market Analyst ] 최유준 수석연구원 ☎ (02) 3772-1964 ✉ junechoi1@shinhan.com

## 양호한 실적 시즌과 소외 업종으로 상승세 확대

한국과 미국 증시 공통적으로 양호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기대가 작용하고 실적장세도 진행되면서 KOSPI는 4일 연속 상승했고 6월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당국의 민간경제 회복 지원 정책 발표 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7월 수출 부진이 이어졌음에도 한국 증시는 여느 아시아 증시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물 바스켓 매수 유입보다 외국인이 선물을 2만계약 가량 순매수했고 미결제약정도 동반 증가한 영향이 큼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0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7월 무역지표 부진과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영향을 줬습니다.

## 바이오, S/W, 금융, 음식료 등 소외주의 강한 반등

반도체와 2차전지의 주도주 경쟁이 진행된 가운데 바이오, S/W, 금융, 음식료 등 소외주의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업종 1)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서프라이즈와 바이오시밀러 부문 성장 기대감 작용. 2차전지 수급 풀림 완화되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 주가 동조화. 2) **S/W**: 금주 대형 플랫폼, 차주 게임주 실적 발표 앞두고 수급 개선 및 AI 관련 기대감 작용. 3) **금융**: 플랫폼 성격을 지닌 인터넷은행과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증권주가 주도

##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 2만계약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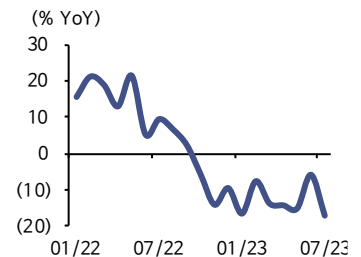
금일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조원으로 2011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됐다고 강세가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느 추세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과매도 구간을 지나거나 상승 추세에 놓여있을 때(15년 8월, 16년 12월, 19년 12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누적 선물 순매수는 (+)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포지션을 의미하는 미결제약정도 늘어났는데 상승 베팅 강화로 연결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식시장 지표

구분	KOSPI	KOSDAQ
증가	2,667.07 (+1.31%)	939.67 (+0.40%)
상승 종목	630 (12)	1017 (16)
하락 종목	258 (10)	488 (10)
주체별	KOSPI	KOSDAQ
개인	-5,505	4,394
외국인	1,999	-2,285
기관	3,308	-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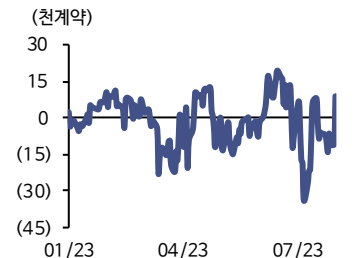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 한국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 외국인 K200 선물 순매수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주. 연초 이후 누적 기준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유준).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